

단어 및 단어결합의 반복사용에 의한 도이칠란드어본문의 구성규범

한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현시기 외국어학습에서는 해당 외국어의 문법규범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도이칠란드어단어나 단어결합과 같은 일정한 언어적단위들을 반복사용하여 문장들을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정확한 본문을 구성하는데서 나서는 규범적문제들을 론하려고 한다.

단어나 단어결합과 같은 언어적단위들을 반복사용하여 본문을 엮어나갈 때 반복사용되는 언어적단위를 관계되는 표현이라고 하며 이 관계되는 표현과 지시관계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쓰이는 표현을 지시관계의 표현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지시관계의 표현사용에서 제기되는 규범적문제들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지시관계의 표현은 명사나 명사적단어결합에 의하여 나타나며 언어밖의 객관적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대상, 정황, 사변, 행동 등과 같은것을 나타낼수 있다.

례1: Ein Mann war zu Rad unterwegs und wollte auf einen Berg steigen; er sah ein Anwesen liegen und stellte dort ein. Der Mann hieß Oberstelehn ...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도중 산으로 오르려 하였는데 어느 한 건설부지가 있는것을 보고 거기에 멈춰섰다. 그 사람은 오버슈텔렌이라고 불렀고 ...)

2: Eines der ekelhaftesten Verbrechen wird dem 47jährigen Düsseldorf Rechtsanwalt H. J. O. vorgeworfen. Der Jurist soll die Entführung des Millionärs Th. A. inszeniert und dessen Familie um sieben Millionen Mark erpreßt haben. ...
(너절하기 그지없는 범죄사건들중의 한 사건에 47살나는 뉘셀도르프의 검사 하. 요트. 오.가 개입된것을 비난하고있다. 그 법학자는 백만장자 트. 아.의 유괴를 조작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700만DM를 내라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

3: Ein 79jähriger Rentner wurde in der Nacht zum Dienstag in Harburg von einem Auto tödlich verletzt. Das beschädigte Fahrzeug und seine drei Insassen wurden im Laufe des Tages gefunden.

(79살나는 한 년로보장자가 월요일 밤에 하르부르크에서 어떤 자동차에 치워 심한 치명상을 입었다. 파괴된 차량과 차에 탔던 3명의 승객들은 낮에 발견되였다.)

4: Auf ungewöhnliche Weise wollte ein 43 Jahre alter Mann aus Pforzheim in der Nacht zum Donnerstag Selbstmord begehen. Wie die Polizei mitteilte, war der Facharbeiter nach Streitigkeiten in seiner Wohnung in Notarrest gebracht worden. Dort leerten die Beamten dem Betrunkenen vorschriftsmäßig die Taschen, um „Dummheiten“ des Gefangenen zu verhindern. Eine halbe Stunde später fanden die Beamten den Mann mit aufgeschnittenen Pulsadern in seiner Zelle vor. ...

(특이한 방법으로 포르츠하임의 43살나는 한 남자가 수요일 밤에 자살하려고 하였다. 경찰이 전한데 의하면 그 기능공이 자기 집에서 다툼질을 한것으로 하여 그를 긴급구류하려고 데려갔다고 한다. 거기서 관리들은 잡혀온 그 사람이 어리석은것을 하는것을 방지하려고 술에 취한 그 사람의 주머니를 규정대로 다 털어냈다. 한 반시간쯤 지나서 관리들은 동맥을 자른 그 사람을 감방에서 발견하였다. ...)

우의 실례들에서 지시관계의 표현들은 명사나 명사적단어결합으로 나타낼 때 미정관사나 정관사를 사용하고있다. 이로부터 지시관계의 표현이 어떤 경우에 미정관사를, 또 어떤 경우에 정관사를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미정관사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알려져있지 않은 정보를 담은 표현들에 사용하며 정관사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있는 정보를 담은 표현들에 사용한다.

이로부터 말하는 사람은 지시관계의 표현이 알려져있지 않은 정보를 담은 대상으로 간주될 때에는 실례1과 3,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정관사를 사용하며 지시관계의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있는 정보를 담은 대상으로 간주될 때에는 실례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관사를 사용한다.

지시관계의 표현들에 정관사가 사용되는 우와 같은 경우외에 언어적단위들에는 이미 《알려져있는》(definit)것이라는 특징을 가진것들도 있다. 그러한 표현들에는 고유명사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널리 사용되고있는 보통명사 실례로 《der Mensch》(사람), 《das Tier》(짐승) 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것을 나타내는 명사 실례로 《der Mond》(달), 《die Sonne》(해, 태양) 등이 속한다.

다음으로 관계되는 표현의 사용에서 제기되는 규범적문제들을 론하려고 한다.

관계되는 표현들은 지시관계의 표현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현상을 반복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전혀 동일하지 않은 대상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되는 표현의 사용에서 제기되는 규범적문제들은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볼수 있다.

우선 관계되는 표현들이 지시관계의 표현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현상을 반복사용할 때 제기되는 규범적문제들의 경우이다.

이때 관계되는 표현들은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의 반복사용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와는 다른 명사나 명사적단어결합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경우, 대용형태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관계되는 표현들이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의 반복사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복사용하는 관계되는 표현의 앞에 정관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실례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시관계의 표현인 《Mann》을 반복사용할 때 그 명사의 앞에 정관사 《der》를 사용하였다.

관계되는 표현들이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와는 다른 명사나 명사적단어결합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게 된다.

첫번째 경우는 관계되는 표현들이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와는 다른 명사들이지만 의미가 비슷한 경우인데 이 관계되는 표현들은 지시관계의 표현보다 의미폭이 더 큰 명사들이다. 실례2와 3에서 밑줄을 친 지시관계의 표현인 《Rechtsanwalt》(검사)와 관계되는 표현인 《Jurist》(법학자)사이, 《Auto》(자동차)와 《Fahrzeug》(차량)사이에는 일정한 의미적연관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분석해보면 지시관계의 표현 다음에 관계되는

표현들로 쓰이는 명사들의 의미폭이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들보다 더 크며 상위개념을 나타내고있다.

두번째 경우는 관계되는 표현으로 쓰이는 명사들이 지시관계의 표현과는 다른 명사들이며 그 의미나 의미폭에 있어서 지시관계의 표현과 전혀 동일하지 않은 명사들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지시관계의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는 미정관사로 시작되고 이것과 관계되는 표현들은 다 정관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언어적환경의 도움으로 지시관계의 표현만을 넘두에 두고있다는것이 명백해져야 한다.

실례4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시관계의 표현인 명사적단어결합 《ein 43 Jahre alter Mann aus Pforzheim》(포르츠하임태생인 43살나는 한 남자)은 미정관사로 시작되고 이것과 관계되는 표현들인 《Facharbeiter》(기능공), 《Betrunkenen》(술에 취한 사람), 《Gefangenen》(잡힌 사람) 등에는 다 정관사가 사용되고있다. 이것들은 지시관계의 표현인 명사 《Mann》(남자)과는 다른 명사들이고 그 의미나 의미폭에 있어서 그것과 전혀 다르지만 언어적환경의 도움으로 이 관계되는 표현들이 다 지시관계의 표현인 《Mann》을 나타내고 있다는것이 명백하여 《포르츠하임태생인 43살나는 한 남자》를 넘두에 두고있다.

관계되는 표현들이 대용형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대용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규범적문제들이 있게 된다.

도이칠란드어의 대용형태들에는 인칭대명사(er, sie, es, sie)와 지시대명사(dieser, jener, der), 부사(da, dort, damals, deshalb 등), 대명사적부사(dabei, darin, darauf, damit, hierdurch, worin 등) 등이 속한다.

관계되는 표현으로 인칭대명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인칭대명사가 지시관계의 표현과 문법적성과 수에 일치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례5: Kennst du Müller? *Der* ist mein bester Freund.

(너 물러를 아니? 그앤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야.)

관계되는 표현으로 지시대명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인칭대명사 《er》의 사용때와 같이 지시관계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적단어결합을 지적하여 쓰이는 때와 여러 문장들을 통털어 지적하여 쓰이는 때가 있다.

례6: Kennst du Heinz? *Der* ist mein bester Freund.

(너 하인츠를 아니? 그앤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야.)

7: Als die Kinder die Macht ergriffen, gingen die Eltern in Deckung. Luftballons flogen über eingezogene Köpfe. Mobiliar polterte über das Parkett. Der Fußboden bebte unter stampfendem Toben. Im Souterrain rieselte Kalk. Triumphgeschrei aus heiseren Kehlen hallte hinaus in den Grunewald. 33 Kinder (zwischen zwei und zwölf Jahren) hatten die Freiheit entdeckt. Das war gegen 18 Uhr am ersten Tag einer außergewöhnlichen Woche.

(아이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부모들은 은폐하였다. 기구들이 움츠린 머리우로 날아갔다. 가구가 빠르게뜨우에서 덜거덕 소리를 냈다. 마루가 쿵쿵거리며 사납게 요동치는 속에 움실움실 진동하였다. 반지하실안에서 석회가 부실부실 떨어졌다. 왼소리로 웨쳐대는 대성공의 목소리가 멀리 그루네왈트밖으로 메아리쳐갔다. 33명의 아이들(2살부터 12살사이의)이 자유를 찾았다. 이것은 여느때와는 다른 주의 첫날 18시경에 있는 일이었다.)

우의 실례6에서는 지시대명사 《der》가 인칭대명사 《er》와 같이 앞의 문장에 쓰인 지시관계의 표현인 《Heinz》를 가리켰다면 실례7에서는 지시대명사 《Das》가 인칭대명사 《er》와는 달리 앞의 문장에 있는 그 어떤 지시관계의 표현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앞의 문장들전체를 가리켜 쓰이고있다.

관계되는 표현으로 부사들이 쓰이는 경우에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사용되며 지시관계의 표현으로는 명사나 명사적단어결합이 쓰인다.

례8: Hans wohnt in Berlin. Dort studiert er Medizin.

(한스는 베를린에서 살고있다. 거기에서 그는 의학을 배운다.)

9: Hans war im Jahre 1970 in Hamburg. *Damals* lernte ich ihn kennen.

(한스는 1970년에 함부르크에 있었다. 그때 내가 그를 알게 되었다.)

관계되는 표현으로 대명사적부사들이 쓰이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지시관계의 표현을 명백히 지적하여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례10: Er hielt eine Rede, *worin* (in der) er seinen Lehrer erwähnte.

(그는 연설을 하였는데 연설에서 자기 선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1: Hans fragte sich, ob er ins Kino gehen sollte oder nicht. Er hatte *dabei* auch zu berücksichtigen, dass er sein Arbeitspensum noch nicht erledigt hatte.

(한스는 영화관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벌칙으로 받은 과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것을 고려하여야만 하였다.)

대용형태가 관계되는 표현으로 쓰이는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것이 있다.

이미 위에서 든 실례들을 본문구성의 선적배렬의 견지에서 분석해보면 지시관계의 표현이 먼저 놓이고 그다음에 대용형태들이 나타나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본문언어학에서는 《뒤로의 지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언어행위의 본문구성에서는 이런것만이 있는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지시》도 있다. 다시말하여 본문구성을 선적배렬의 견지에서 분석하여보면 앞에서 대용형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앞에 놓인 대용형태와 련관되는 지시관계의 표현이 놓인다. 이와 같은 앞으로의 지시의 전형적인 대용형태는 《folgendes》(다음의것)이다. 그밖에 뒤로의 지시에 쓰이는 대용형태들도 앞으로의 지시에 사용되고있다.

례12: Warum hat sie kein anderer gefunden? Warum gerade ich, der ihren Wert weiß, ... Ich konnte nicht ahnen, was die Kapsel enthielt. ...

(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찾지 못했는가? 왜 하필이면 그것의 가치를 알고있는 바로 내가... 교갑안에 어떤것이 들어있는지 나는 예상할수 없었다. ...)

우의 실례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시관계의 표현인 《die Kapsel》은 이것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sie》와 소유대명사 《ihren》의 앞에가 아니라 뒤에 놓이였다.

본문구성의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된 본문구성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원래 문법적으로 놓고볼 때 인칭대명사는 보통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므로 먼저 명사가 쓰이고 그다음에 쓰이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규범에는 어긋나게 쓰이고있는것이다. 즉 지시관계의 표현인 《die Kapsel》이 먼저 놓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신하는 대명사(《sie》, 《ihren》)들이 쓰이어야 하는 일반적인 본문구성의 원칙과는 상반되는것이다.

인칭대명사의 이러한 쓰임은 특이한 현상으로서 그 쓰임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본문언어학적견지에서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현상은 문학본문들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언어행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신문들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다.

례13: Man hat *ihn* einen Magier der Sprache genannt. ... *Er* ist als Wegbereiter des Nationalsozialismus angeklagt. ... Ernst Jünger, ... ist bis heute ... geblieben. (그를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렀다. ... 그는 민족사회주의의 창시자로 기소되었다. ... 에른스트 용어는...오늘까지...으로 남아있다.)

또한 관계되는 표현의 사용에서 이것들이 지시관계의 표현과 동일한 명사나 명사적 단어결합이 아니라 그것의 어느 한 부분이거나 그것과 관계되는것을 나타낼 때 제기되는 규범적문제들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지시관계의 표현의 어느 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근접관계에 있는 명사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첫째로, 지시관계의 표현의 어느 한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

례14: Am 8. November 1940 kam ich in Stockholm an. Vom Bahnhof fuhr ich zu Schedins Pension in der Drottningata, wo Max Bernsdorf ein Zimmer für mich bestellt hatte.

(1940년 11월 8일 나는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역전에서 나는 막스 베른스도르프가 나를 위해서 침실 한개를 주문해놓은 드로팅가타에 있는 셔딘의 하숙집으로 차를 타고갔다.)

15: Das graue Giebelhaus, in dem Johannes Friedemann aufwuchs, lag am nördlichen Tore der alten, kaum mittelgroßen Handelsstadt. *Durch die Haustür* betrat man eine geräumige, mit Steinfliesen versehene Diele, von der eine Treppe mit weißgemaltem Holzgeländer in die *Etagen* hinaufführte. Die *Tapeten des Wohnzimmers im ersten Stock* zeigten verblichene Landschaften. (요한네스 프리데만이 성장한 합각지붕을 이은 집은 거의 중간급크기의 오랜 상업도시의 북쪽문결에 위치하고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타일을 깔 널찍한 현관이 있었다. 여기서 흰칠을 한 나무로 된 란간이 있는 계단이 층계로 향해 있었다. 2층에 있는 살림방의 벽지는 색바랜 풍경을 보여주었다.)

우의 실례14에서 지시관계의 표현인 《Stockholm》(스톡홀름)다음에 그것의 한 부분인 《Bahnhof》(역)이 놓이였으며 실례15의 지시관계의 표현인 《Haus》(집)다음에 그것의 부분들인 《Haustür》(문)과 《Etagen》(층계), 《des Wohnzimmers im ersten Stock》(2층에 있는 살림방) 등이 놓이였다.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Bahnhof》는 《Stockholm》의 한 부분이며 《Haustür》와 《Etagen》, 《des Wohnzimmers im ersten Stock》 등은 《Haus》의 일부 부분들에 속하는것으로서 지시관계의 표현다음에 놓이는 명사와 명사적단어결합들은 그것의 일부 부분을 나타내고있다.

둘째로, 지시관계의 표현과 근접관계에 있는 명사들이 쓰일 수 있다.

근접관계에 있는 몇개의 실례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논리적인 근접관계에 있는 명사들

eine Niederlage(패배): der Sieg(승리), ein mühsamer Aufstieg(힘겨웁게 산으로 오

름): der Abstieg(산에서 내림)

○ 존재상에서 근접관계에 있는 명사들

ein Blitz(번개): der Donner(우뢰), ein Mensch(사람): das Gesicht(얼굴)

○ 문화적으로 근접관계에 있는 명사들

eine Straßenbahn(궤도전차), ein Haus(집), die Türen(문들)

우와 같은 근접관계에 있는 명사들로 본문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례16: Wir hatten *einen mühsamen Aufstieg*. *Der Abstieg* war aber viel leichter.

(우리는 힘겨웁게 산으로 올랐다. 산을 내려가기는 훨씬 쉬웠다.)

17: Morgen muss ich *eine Prüfung* ablegen. *Der Prüfer* ist mir wohlgesinnt usw.

(래일 나는 시험을 치르어야 한다. 시험관은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지시관계의 표현과 근접관계는 없지만 실제적인 언어사용에서 언어적환경의 도움으로 서로 련관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도 본문구성이 가능하다.

례18: Hans betrat *ein Haus*. *Das Mädchen* schrie laut.

(한스는 어느 한 집에 들어섰다. 처녀가 세게 고함을 질렀다.)

우의 실례18에서 《Haus》(집)와 《Mädchen》(처녀)사이에 근접관계는 없지만 언어적환경의 도움으로 본문구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앞으로 도이쉴란드어본문의 구성규범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켜 이룩된 성과들을 교수사업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